

2015. 4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5년 4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사	
2015.4.28.	대전MBC 대회의실	8/10	7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유덕순, 송인덕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오승용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차태현 방송기술센터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6	10	-	2	18	-	18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9	9	-	18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1건	11건	3월
교양	로컬프로그램 내실화를	로컬프로그램 내실화, 특집 프로그램 정진하고 있음	3월
보도	큰 비와 많은 비 혼동해서 쓰지말기를	뉴스제작 시 어법에 맞게 사용	3월
교양	기상캐스터 연결 자연스럽게 하도록	기상캐스터 연결 자연스럽게 함.	3월
보도	한화이글스, 대전시티즌 보도 전문적 식견 필요해	대전 연고 프로팀 보도시 입체적 분석으로 전문적 시각 전달	3월
교양	로드 다크 프로그램 영상에 맞게 배경음악 적절하게	로드 다크(테마기행 길) 영상에 맞는 배경음악 삽입	3월
교양	건강 프로그램 의사와의 질문 시청자들 눈높이에 맞게	건강관련 프로그램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	3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 야외제작시 배경 신경쓰도록	교양 프로그램(전국이 보인다) 야외제작 배경 좋은 곳으로	3월
보도	노인일자리 사업 보도 필요	노인 일자리 사업 뉴스 제작함	3월
보도	과학기술 뉴스 필요	과학기술 관련 뉴스 지속적으로 보도	3월
보도	보도 토론프로그램 자막 활용도 높히도록	토론 프로그램(시사광장) 자막 활용도 적절하게 처리	3월
교양	교양 토크 프로그램 출연진 대중성도 보도록	토크 프로그램(토크 앤 조이) 대중성 인물 출연	3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변동사항 없음) 임기: 2014. 5. 27.~2016. 4. 26.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오덕성	충남대 부총장 세계과학도시연합사무총장	한국도시 행정학회	과학기술단체	위촉
부위원장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단체	위촉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촉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촉
위원	박희원	대전충남 경영자총협회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유임
위원	한찬희	전 세계인삼엑스포 사무총장 현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감사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명수	전 표준과학연구원장 현 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사)대덕클럽	과학기술단체	위원 유임
위원	유덕순	전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현 대전YWCA 사무총장	대전YWCA	소비자보호 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형주	배재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한국영화 교육학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송인덕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현 중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이버커뮤니케 이션 학회	언론단체	위원 유임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4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4월 5일 <전국이 보인다>는 어른들을 위한 힐링 트렌드와 만원으로 즐길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 제주전기차 엑스포 등을 주제로 전국의 다양한 현장과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재미와 흥미를 소개해주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정보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유익하였으며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특히 착한업소를 소개하는 대목에서는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힘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소개되는 지역에서는 자부심과 전통의 맛과 멋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전통주 막걸리를 시민들이 직접 담가보는 장면에서는 위생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방송되어 시청자들의 눈살을 받을 것이라 생각된다.</p> <p>또한 제주도에 열리고 있는 전기차 엑스포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들을 소개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녹색 교통혁명을 주도하는 전기차를 각 회사별로 홍보하고 있어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관심을 이끌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조직위원장이 소개하는 대목에서는 자막이 화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아쉬움을 남겼다(오덕성).</p>	<p><전국이 보인다>는 대전·충남 지역의 소식외에도 전국 각지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p> <p>프로그램 제작 시 화면과 자막의 배분에 제작자가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p>	○		
보도	<p>대전MBC 시사광장(4월 11일)에서는 「호남고속철도 개통, 변화와 과제」 편을 주제로 방송하였다. 호남고속철도 개통 후에 나타난 서대전역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또 철도시대를 맞이한 공주역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p> <p>이에 본 방송은 4명의 전문가들이 토론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한 명씩 호남고속철도 개통의 국가적, 지역적, 산업적 측면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는 시간은 호남고속철도의 효과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을 것이다.</p> <p>진행자의 적절한 질문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대신하였으며, 답변방식은 자유로운 발언으로 매끄러운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p> <p>다만, 초반에 진행자와 토론자들 발언시간</p>	<p>토론 중 패널들의 발언 시간을 일일이 제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사전에 패널들에게 주제당 발언 시간을 공지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전체 토론 시간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		

	<p>이 다소 길어 방송이 끝날 무렵에는 시간에 쫓기듯 급한 마무리와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보여 아쉬움이 남았다. 발언시간 분배를 적절히 하였다면 토론이 더욱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오덕성).</p>			
기타	<p>100년 친구 대전MBC 홈페이지 사이버 홍보실은 맨 아랫부분에 있다. 사이버 홍보실은 홍보 비디오, 사이버 견학실<견학신청>, 방송가 사람들, 프로그램 속으로, 보도자료 등으로 구성 돼있다. 대전MBC 사이버 홍보실의 “방송가 사람들”은 지난 2006년 5월10일 1호 주인공 ‘우경수 엔지니어’를 시작으로 9년 동안 지금까지 99건이 게재 됐다. 그런데 지난 2014년 3월호 언론인권상 특별상 수상자 ‘시사 플러스’의 이민수PD를 만나다 편의 조횡수 15,248건 이후 3월31일 대전MBC 단독보도 ‘세종시 철근 없는 아파트’ 조횡수가 564건으로 급감 한 이후 두 자릿수 조횡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 부터는 지금까지 모두 3차례(105건, 54건, 지난 3월호 미래포럼 박영숙 대표 초청 조찬 포럼:46건) 나 일반인들의 조회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듯, 최근 들어서 사이버 홍보실의 ‘방송가 사람들’의 조횡수가 그동안 만 단위에서 두 자릿수로 급감 하게 된 것은 언젠가 대전MBC 홈페이지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이후 ‘사이버 홍보실’이 홈페이지의 하단에 위치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검색 시도를 다소 어렵게 하지 않았나 싶다. 한때, 최대 73,057건의 조횡수를 기록했던 ‘대전MBC 보도국 상복 터진 사연’(2011년 1월호)이후 많은 지역민들이 찾았던 ‘방송가 사람’ 코너가 최근 들어 찾는 이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깝다. ‘그들만의 리그’가 될까봐 걱정된다. 예전의 화려함(?)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김학선).</p>	<p>홈페이지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위치했다. 리모델링 이후 사이버 홍보실의 항목 위치가 변경되면서 조회 수가 줄어들었다고 판단된다. 노출 횡수를 증가시키도록 고민을 하겠다.</p>		
교양	<p>DJ 프로그램 중에 ‘너무’라는 단어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기뻐 미칠 것 같다.”, “너무 고맙습니다.” 등등. 여기서 ‘너무’는 ‘정도에 지나치게’, ‘도를 넘거나 한계를 지나치게’ 라는 뜻을 지닌 부사로서 ‘몹시’라는 단어와 함께 부정적인 의미와 호응을 이루어 사용해야 한다. 부정적인 의미란, 뒤에 반드시 ‘... 이 아</p>	<p>아나운서 및 진행자에 대한 바른말 사용 교육은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너무>에 대한 사용례와 방송에서의 부적절한 사용 등은 진행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겠다.</p>		

	<p>니다', '... 할 수 없다'와 같은 부정문이 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 화자가 문장의 뉘앙스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너무(몹시)' 라는 표현을 쓴다는 뜻이다. 그리고 기준이나 한도와 상관없는 낱말에 '너무'를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p> <p>부사의 기본적인 기능은 서술어를 수식하면서 의미상 뒷 서술어의 의미 강도를 강하게 해준다. 그런데 문제는 방송 현장에서 '너무'라는 낱말이 다른 부사어들 (예를 들면, '매우, 무척, 정말, 아주, 진짜'등)을 대체해 지나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부사의 특성을 잘 살펴서 문장 중에 적절한 부사를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용어 사용이라 할 수 있다.</p> <p>다시 한 번 정리하면 '너무'는 부정적인 서술어에 쓰는 것이 옳다.</p> <p>예를 들어 "너무 좋았어요."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문장이므로 , "무척 좋았어요." / 정말 좋았어요."로 고쳐야 한다.</p> <p>하나 더, '매우'는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의 뜻을 지닌 부사로 '무척'등과 같이 긍정, 부정에도 모두 쓰일 수 있지만, 주로 긍정적인 표현에 사용된다.</p> <p>즉, 화자가 그 정도에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로 표현을 할 때는 '너무' 를 그렇지 않고 바람직하거나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뉘앙스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매우'를 사용한다(김학선).</p>			
<p>보도</p>	<p>대전MBC 시사광장(4월 18일)에서는 「사이언스콤플렉스 공공성 축소되나?」 편이 방송되었다.</p> <p>시사광장에서 과학의 달을 맞아 연구단지와 과학기술 관련 주제를 계속적으로 다루었다. 연구단지 종사자로서 토론 내용에 관심을 갖고 보았다. 패널선정이 좋아보인다. 토론의 진행을 보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의 의미 ②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립사업 추진상황 ③ 500억원 지원 약속 어떻게 변경됐나? ④ 사이언스콤플렉스의 기능과 역할 ⑤ 기초과학연구원 건립에 미치는 영향 ⑥ 대전시- 미래부 절충안은? <p>이번 경우 ①④②③⑥⑤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면 시청자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p> <p>대전시에서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전체적 구성을 도표로 준비하여 설명하였으나,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김명수).</p>	<p>적절한 지적에 감사드림. 다만 대전시와 미래부의 500억 지원 방식 절충은 토론 당시 정확한 진행 상황이나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후반부로 미뤄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p>	<p>○</p>	

<p>보도</p>	<p>대전MBC 시사광장(4월 4일) 주제는 「대전 원자력시설 안전한가?」이었다. 최근 보도된 하나로 원자로 내진시설의 안전문제 관련하여 패널의 구성이 원자력연, 안전기술원, 시의원, 시민협의회 대표 등 적절하게 선정되었다. 하나로 원자로에 대해 2011년 내진 검토한 결과가 2014년에 발표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이나 신뢰 부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원자력 안전문제는 대전지역 주민들에게 언제나 뜨거운 관심사이다. 이 번 토론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원자력 안전문제가 다루어지길 바란다. 토론 프로그램 이외 보도국 기자가 발로 뛰어 특집 형식을 지닌 영상물로 문제제기를 해준다면 더욱 좋겠다(김명수).</p>	<p>언제라도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토론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p>	<p>○</p>	
<p>교양</p>	<p>시사플러스에서 「숲의 파괴자 소나무 재선충」(4월 15일)을 다루었다. 평소에 관심○리 많았던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해 매우 유용했다. 특히 일본이나 대만에서 사실상 방제를 포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경우 소나무의 절대적 수량이 많지 않아 우리와는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만, 재선충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병이 발생한 후에 제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잠시 언급한 약재 주임과 같이 예방약의 사용법과 효능, 치료약의 개발 정도나 개발이 어려운 이유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더욱 좋았겠다. 아울러 효과적인 방제가 어려운 이유가 인간의 개입에 있다는 가정이 맞다면 법적, 예산적 뒷받침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현실 점에서 재선충의 확산은 통제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산림청의 태도는 너무 낙관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개인적으로는 기후변화와 재선충의 확산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아쉬웠다(성정모).</p>	<p><시사플러스>는 지역의 다양한 시사문제를 직접취재하고, 시청자들과 함께 해법을 고민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선충은 방제 및 확산 예방이 매우 어렵고, 동시에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시사 프로그램의 경우 다루는 범위가 광대해지면 초점을 흐리는 경우가 많아 제작자는 많은 내용 중 취사선택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선명한 부각에 노력하고 있다. 지적한 내용들은 제작 시 유념하겠다.</p>	<p>○</p>	
<p>교양</p>	<p>시사플러스에서 「벼랑끝 지방대 어디로」(4월 일)라는 주제를 갖고 지방대 문제를 다루었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 기대를 갖고 시청했다. 중부대의 사례와 같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취재를 시작으로 전체적인 주제로 나갔는데 다만 중부대라는 특정 대학의 취재가 늘어진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이 부분의 경우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언급과 그보다 선행해서 95년 이후의 무분별한 지방대학 인가,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정</p>	<p>대전·세종·충남 지역의 대학으로 한정해서 취재를 하고, 타지역은 비교를 하기 위한 소재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소재는 지방대의 서울·경기 이전이 주요 내용으로, 대학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에 대한 내용이다.</p>	<p>○</p>	

	<p>책부채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적었다.</p> <p>아울러 사이버대학, 학점은행 등 정규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알고 있다. 취재의 결론도 결국 정부의 정책이 지방대를 배려해야 한다는 결론인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 입장 즉 지나친 대학 정원의 증가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병폐(4년제 대학생의 취업의 어려움) 문제도 진지하게 고려되었어야 하지 않나 싶고 이 부분은 결국 정부가 지난 정책의 실패(무분별한 지방대학 인가 및 정원 확대)를 인정한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성정모).</p>				
<p>보도</p>	<p>대전MBC 뉴스데스크를 4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였다. 메인 뉴스급이라고 할 수 있는 뉴스데스크에서 단신 위주의 뉴스 보도가 많다. 로컬 뉴스 전체량이 14분이라는 시간적 한계가 있지만 집중 이슈를 발굴, 심층 취재한 기획뉴스를 찾기 어려워 아쉬움이 크다. 그리고 시사 뉴스가 많이 줄어들었다. 생활밀착형 뉴스의 중요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사 뉴스는 빠지면 안된다. 브랜드 이미지는 시사뉴스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최근 뉴스가 연성화 되어 가고 있어 안타깝다. 지역을 대표하는 방송사로서 여론을 생성하고 주도해 나가는 역량을 보여주기 바란다(박희원).</p>	<p>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탐사 및 기획보도를 늘려, 대전MBC 뉴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p>		○	
<p>기타</p>	<p>대전MBC 다시보기 모바일 서비스가 초창기에 비해 월등히 좋아졌다. 화질도 상당히 양호해서 모바일로 시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 좋았다(박희원).</p>	<p>모바일로 시청하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 정진하겠다.</p>		○	
<p>교양</p>	<p>시사플러스에서 장항선 철도 2단계 계량사업의 일환으로 충남 광천 지역을 통과하는 장항선 철도의 직선화 고속화 사업을 진행 중인 철도시설공단과 광천 지역민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를 취재하였다(4월 24일 방송). 처음 국토부 기본계획안에서 여객 접근성, 예산절감 효과를 내세워 철도시설공단에서 노선을 변경하면서 폐석면 광산 터널 작업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몇 십 년 간 석면 공포로 아픔을 겪었던 광천 주민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전달되었다.</p> <p>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역 주민의 인터뷰 분량에 비교하여 철도시설공단 관계자의 인터뷰 분량은 상대적으로 적어 아쉬웠다(박희원).</p>	<p>장항선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방송이후 여러 언론의 동반취재를 가져온 내용이다. 프로그램 취재 시 항상 양쪽의견의 고른 배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으며 구성에 있어서도 양측 의견의 균형을 중시하고 있다.</p> <p>다만, 취재에 소극적인 경우 제작자로서 보다 많은 분량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점 양해 바란다.</p>		○	

<p>보고</p>	<p>대전MBC 뉴스 보도량을 계산해보니 평일에는 12개 내외, 주말에는 8개 내외이다. 한정된 기자 인력으로 취재를 하다 보니 애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어쨌든 시청자 입장에서 대전MBC의 뉴스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면, 무엇보다도 뉴스에서 탐사보도가 없다는 것이다. 일전 특종한 '세종시 뼈대 없는 부실아파트' 보도와 같은 탐사보도가 긴요한 시점이다. 지역의 환경파수꾼 역할은 중요하다 (김영주).</p>	<p>탐사보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건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청자 제보 관리를 철저히 해 특종 보도를 위해 노력하겠다.</p>		○	
<p>보고</p>	<p>지난 17일과 22일 뉴스데스크에서는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다루었다. 우선 먼저, 17일과 19일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17일에는 주택매매 6억~9억원 미만이 0.9%에서 0.5%로 전세 3억~6억 미만이 0.8%에서 0.4%로 낮아져 이른바 반값 부동산 중개료 시행으로 주민부담이 줄어 들었다고 소개하였고, 19일에는 반값이 된 중개보수는 일부구간 사이일 뿐 나머지 구간은 전과 같으며 '반값'이라는 단어 때문에 모든 중개보수가 절반으로 깎였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수도권과 달리 우리 지역에서는 혜택 대상이 전체의 1%에 불과하다고 보도하였다. 이번 반값 중개료는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제도 개선안'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주택을 매매·임대할 때 매매는 6억~9억원, 임대차는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거래가격의 0.5% 이하, 0.4% 이하에서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각 자치단체에 권고해 시행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 부동산중개수수료 인하의 주요 골자는 일부 고액 구간에 한해 중개수수료를 반으로 인하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반값이라는 용어로 인해 소비자들은 마치 모든 중개보수가 절반으로 인하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17일자와 19일자 대전MBC 보도내용을 비교해 보면 같은 언론매체에서 서로 상충되는 내용으로 보도를 내보내고 있었으며, 특히 17일자 보도내용은 시청자로서 하여금 중개보수가 절반으로 깎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상황이었다. 대전MBC 뉴스데스크를 포함하여 대다수 언론매체에서도 포커스를 '반값'에 두고 보도하였지만, '대전시, 반값 중개료 도입은 했지만 3억 이상 거래 때만 혜택', '적용 대상 적어 찻잔 속 태풍' 이라 보도제목을</p>	<p>지역에서 반값중개료에 대한 주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어, 단신 보도 이후 별도의 리포트 물로 제작해 혼란이 없도록 노력을 했다. 추후에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고 핵심을 추려 명료하게 내용을 알리는 단신 기사 작성에 유념하겠다.</p>		○	

	<p>잡은 일부 일간신문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며, 대전MBC도 17일자 보도제목을 ‘대전, 일부 구간에 한해 반값 부동산 중개료 오늘부터 시행’으로 잡았어야 맞았다(장백기).</p>			
교양	<p>매주 화요일 오후 6시10분에 방영하는 ‘테마기행 길’은 전국의 가볼만한 곳을 찾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p> <p>4월 21일 ‘테마기행 길’에서는 강원도내 수많은 전통시장 중 정선의 정선장, 태백의 통리시장, 원주의 자유시장, 강릉의 주문시장, 속초의 중앙시장을 찾아 각 전통시장의 먹거리 볼거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p> <p>이날 방영된 ‘맛따라 떠나는 장터여행’의 전체적인 감상평을 하라고 하면 “어릴 때 엄마 손을 잡고 가던 곳, 가격도 싸고 다양한 물건과 먹거리가 있는 곳, 그러나 나도 모르게 멀리 하고 이용이 불편한 곳 전통시장이, 시장을 돌아 다니면서 구경하는 재미와 소소한 재미가 있는 곳, 제철 식품도 보고 간단한 먹거리의 장점이 있는 곳 전통시장으로 다시금 돌아보게 하였다”는 것이다.</p> <p>또한 정선장의 콧등치기 국수, 원주 자유시장의 치즈떡볶이돈가스, 속초 중앙시장의 덕덕닭강정을 소개할 때에는 나로 하여금 그곳을 한번쯤 가보고 싶다는 마음의 충동을 일으켰다. 그만큼 편안하게 보고 시청자의 마음을 이끈 시간이 되었다고 하고 싶다.</p> <p>지금 전통시장은 전국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방송에서도 이런 정부시책에 호응해 보조를 맞춰 나간다면 시청자는 물론 일반 서민의 삶이 깃든 곳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장백기).</p>	<p>우리고장에도 많은 전통시장과 문화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테마기행 길에서 적극 발굴, 프로그램에 담아 잊혀져가는 전통 풍경들을 담도록 노력하겠다.</p>		
교양	<p><생방송 아침이 좋다>에 시청자사연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다. 진행자가 시청자사연을 그대로 읽어내려 가는 것이 좋은 지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한 좋은 방법은 없는 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김형주).</p>	<p><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시청자들에게 알찬 지역정보와 다양한 화제의 현장을 소개하는 아침 생방송 프로그램이다.</p> <p>생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있고, 시청자 문자 소개는 방송시간중 시청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코너이며, 좋은 호응을 얻는 코너이기도 하다.</p> <p>시청자 사연의 전달 부분에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p>		
교양	<p><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섹션을 요일별로</p>	<p>프로그램 내부의 요일별 기획은 이미</p>		

	구분을 해서 시청자들이 시청하기에 편리하게 하였다. 욕심을 내자면 월- 한 주간의 생활밀착형 뉴스 소재, 화- 이슈, 수- 요리 체험, 목- 문화체험, 금- 나들이 등과 같이 요일별로 주제를 구분하여 기획을 한다면 좋겠다(김형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프로그램 기획 회의를 통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교양	<건강플러스>(4월 18일)에 장염과 관련된 음식을 소개하였다. 카메라가 많이 흔들렸다. 현장의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화면구도의 불안정이 아쉽다. 음식 소개할 때도 맨손으로 음식을 주물럭주물럭 만드는 것이 보기 안좋았다. 위생장갑을 끼고 요리를 했어야 한다고 본다(한찬희).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문 요리사의 경우 위생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제작한다. (전문 식당의 요리사의 경우, 위생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이점 양해 바란다.		○	
교양	우리 지역 시청자들을 위해 유익한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유엔미래포럼 박영숙 대표의 강연은 참 의미 있었다. 이런 좋은 강연회를 지속적으로 해 주길 바란다(한찬희).	대전MBC에서는 지역의 시청자들의 다양한 정보획득과 우수한 내용의 TV 프로그램 형태의 미래특강을 준비하고 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김남도 교수의 특강도 준비되어 있다.		○	